

농부의 믿음

올해는 추석이 이르다. 9월 18일 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몇 십 년 만의 처음이라는 올해 무더위도 시간을 이길 수는 없었고, 벌써 아침과 저녁으로는 스산한 가을바람이 옷깃에 스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계절의 섭리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설계의 일부일 터이다.

지난 9월 1일 주일 설교에서, 이강찬 목사는 ‘주인의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 설명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마 13:29~30)는 말씀에 숨은 하



함즐함울 사진

나님의 깊은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는 귀한 설교였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곡식이 다칠까 염려

하는 마음이겠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뽑느라 선한 것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남에

게서 보이는 티끌을 정죄하느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그를 선불리 심판하는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가을을 맞아, 우리 앞에 추수를 앞둔 황금빛 들판이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정작 무엇이 가라지이고 무엇이 곡식인지를 고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터이다. 우리는 그저 너른 들에 익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함을 만끽할 일이겠다. 농부는 알지 못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고 씨앗을 뿌린다. 그 씨앗에 물기를 주어 싹을 틔우고, 햇빛과 비를 내려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니, 이를 믿고 추수 때를 기다리는 이가 농부이며, 그것이 바로 추석을 맞아 되새겨 봐야 할 ‘농부의 믿음’일 것이다.

함즐함울

가을 맞아 다시 시작한 배움의 길들

무더운 여름 동안 잠시 쉬었던 여러 교육과정이 가을을 맞아 다시 시작했다.

가족 중심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겨자씨인도자 수련회가 9월 1일 주일 오후 진행되었다. 총 230여명의 겨자목, 겨자채 그리고 겨자씨 인도자들과 권찰들이 함께 모여서 201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하반기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는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부는 자유철 장로의 겨자씨 선교지원교회 방문결과 보고가 있었고, 남성겨자씨 김광일 집사와 여성겨자씨 조유경 집사의 간증이 있었다. 3부는 각 교구별로 모임을 가지며 두 달 만에 각 교구 목사와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는 예수친구사

역 프로그램이 9월 3일 중예배실에서 개강했다. 조광민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과 김삼화 집사의 간증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예친사는 1기 6개팀, 2기 12개팀, 3기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 팀은 리더교육 훈련으로 3기 22개팀과 함께 MBTI와 삶 나눔으로 진행되었고, 2기 12팀은 각 팀의 담당교역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 외에 교회의 양육클래스 2013년 가을학기가 9월 2일부터 과목별로 열렸고, 아기정원이 9월 5일 개강했다. 9월 3일(화)에 개강한 늘푸른대학 2학기는 12월 3일(화)까지 총 13회를 개강하고 종강하게 된다. 늘푸른대학은 만65세 이상의 주님의교회와 지역주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2학기에는 217명이 수강하게 되었다.

함즐함울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0**

유럽기독교시대의 개막 _ 샤를마뉴 황제 대관식



샤를마뉴 황제의 대관식 장면, 1861년 Friedrich Kaulbach의 작품

800년 12월 25일,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레오 3세의 집전으로 거행된 샤를마뉴(Charlemagne)의 황제 대관식은 중세기로 접어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교황에 의해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에게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의 왕관이 씌어졌다는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중심시대를 마감하고,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유럽의 중세 기독교 시대로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800년에 일어난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로마교황이 야만족으로 천대하던 게르만족으로 구성된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에게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자리를 공인해주었을까? 과연 샤를마뉴는 스스로 로마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 당시 다른 유럽의 통치자들은 샤를마뉴의 로마황제 취임에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아직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샤를마뉴의 생애에 관한 내용은 에인하르트(Einhard)가 829년에서 836년 사이에 쓴 『샤를마뉴의 생애, Vita Caroli』와 이름이 확실하지 않는 세인트갈의 수도사(Monk of Saint Gall)가 883년 혹은 884년에 쓴 『샤를마뉴, De Carolo Magno』라는 두 권의 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샤를마뉴는 742년경, 프랑크 왕국의 왕이었던 피핀(Pepin the Short)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실 그는 피핀의 정식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다. 당시 교황이었던 스테반 2세는 754년 직접 피핀을 찾아와 로마황제의 관을 그 머리에 씌워줌으로써 새로운 카롤링거 왕조(The Carolingian Dynasty)의 시대를 열어주었다. 새로운

왕조의 통치자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피핀은 자신이 제국을 첫째 아들인 샤를마뉴와 둘째 아들인 칼로만(Carloman)에게 공평하게 양분하여 물려주고 768년 운명하였다.

그러나 피핀의 두 아들 샤를마뉴와 칼로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다. 샤를마뉴가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제국의 영토를 넓혀가는 외형적인 성격의 지도자였다면, 칼로만은 이와 반대로 유약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이들의 성격 차이와 정치적 갈등은 결국 샤를마뉴의 군사적 승리로 종결되고(771년) 양분되었던 제국은 다시 샤를마뉴에 의해 통일된 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샤를마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토를 넓혀나갔다. 알프스 산맥 아래, 즉 지금의 이탈리아 북부지방을 통치하던 롬바르드 왕국(Longobard Kingdom)을 정복하고(774년), 772년부터 804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색슨 왕국(The Saxon Kingdom)과의 치열한 영토싸움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색슨 왕국도 샤를마뉴가 장악함으로써, 샤를마뉴는 유럽의 영토 거의 전부를 정복한 명실상부한 프랑크 왕국의 강력한 절대군주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신실한 기독교 제국의 통치자로 여겼다.

800년에 거행된 샤를마뉴의 대관식을 기점으로 로마제국의 기독교

는 프랑크 왕국의 통치권으로 귀속되었다. 지금의 영국과 스페인의 일부 이슬람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의 영토가 강력한 기독교 황제의 영토가 됨으로써, 샤를마뉴의 무력에 의존한 유럽 변두리 지방의 급속한 기독교화가 진행되었다. 끝까지 샤를마뉴에게 저항하였던 색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죽음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이 주어졌다.

자신을 기독교 제국의 황제라고 생각하던 샤를마뉴는 기독교 내의 제도와 신학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샤를마뉴는 먼저 수도원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다. 4세기부터 태동한 수도원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초기의 엄격했던 수도 규범이 느슨해지고, 권력과 결합한 정치적인 수도원장들의 부정과 축재가 계속되자 샤를마뉴는 수도원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운동에 착수했다. 샤를마뉴와 함께 수도원 정화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은 아니안의 베네딕투스(Benedictus of Aniane)였다. 수도 규범을 저술하였던 누시아의 베네딕투스(Benedictus of Nursia)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처럼 카롤링거 왕조의 개혁운동은 수도원 제도의 정화만이 아니라 존 스코투스 에리게나(John Scotus Erigena)를 중심으로 하는 카롤링거 신학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었다. **이강찬 목사**

 **성경 - 한자로 풀어보기 48**

申命記 신명기

(Deuteronomy)

이는 모세가 요단저쪽 습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신 1:1-2)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의 헬라어 “뉘테로노미온”에서 借用(차용)된 영어식 표현이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생활을 마칠 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여 선포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모세오경 중 마지막책으로서 34장으로 이루어졌으며 율법설명이 주된 내용이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申(거듭할 신, 아뢴 신, 납 신):

“발두렁”을 상형문자로 표현한 𠂔(발 전)에 “갈라놓다”의 뜻을 지닌 丨(위 아래로 통할 곤. 뿔을 곤)을 결합시켜 <발두렁처럼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큰소리로 아뢰듯 거듭 친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참고로 “납”은 원송이의 옛 이름이니 잔나비→나비→납으로 압축되었으며 “申”자가 있는 해는 원송이 피가 된다.

★命(목숨 명): “말하다”의 뜻이 있는 口(입 구)에 “명령하다. 부리다”

를 뜻하는 令(하여금 령. 부릴 령)을 합쳐 <상관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니 수행하기 위하여 내놓아야 하는 것이 목숨이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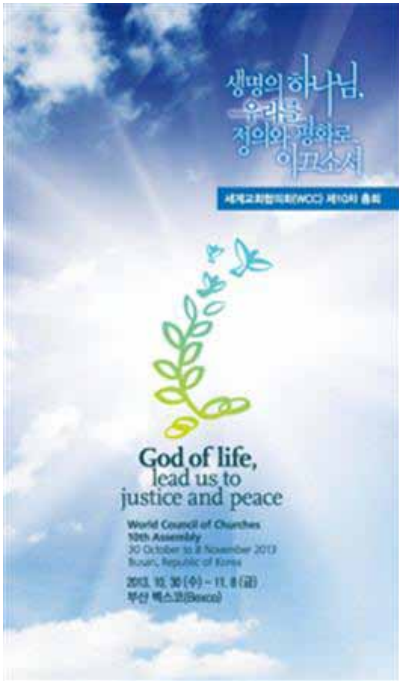
★令(하여금 령. 부릴 령): 새들이 나무위에 모인형상 集(모을 집)의 변형체 𠂔에 “사람이 무릎 꿇은 모습” 𠂔(병부 절)이 결합되어 <사람들을 모아 무릎 꿇리고 부린다>라는 뜻이 되었다.

함줄함울

2013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한국에서 열린다

세계 교회가 한반도에 모이는 신앙축제의 한 마당

2013년 10월 세계 교회의 눈과 귀가 한국으로 모인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God of Life, Lead us to Justice and Peace)”라는 주제로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40개국에 속한 개신교회와 정교회 등 349개 회원교단으로부터 약 5,000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총회는 1961년 인도 뉴델리의 제3차 총회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열리는 총회이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2013년 10. 30~11. 8,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이번 총회는 많은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기간 동안 개회, 아침, 저녁, 폐회 등 여러 예배가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아침 예배 후에는 소그룹 성경공부가 매일 진행된다. 오전과 오후에는 주제 강연 및 총대가 참여하는 전체회의 및 회무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21세기 교회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에큐메니칼 대화가 마련되며, 갖가지 전시회, 워크숍, 이벤트 등이 ‘마당’의 이름으로 펼쳐진다.

주일에는 총회 참가자들이 한국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열차 등의 행사가 열린다. 총회 전에는 여성, 청년, 장애우, 원주민 등의 주제별 사전대회가 진행되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선발된 200여 명의 신학생들로 구성된 세계 에큐메니칼 신학원이 이 기간 중에 열린다. 이 총회를 주관하는 세계교회협의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만물’을 뜻하는

‘오이쿠메네’(oikoumene)의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의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와 공동선교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이다.

1948년 암스텔담에서 조직된 세계적인 교회연합기구

에큐메니칼 운동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라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회의 신앙고백적 응답이다.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극심한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던 20세기 중반,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일치를 위하여 먼저 교회가 일치해야 함을 자각하고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 조직되었다. ‘일치’(Unity), ‘공동증언’(Common Witness), ‘기독교봉사’(Christian Service)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

동해 왔으며, 창립 당시에는 43개국 147개 교단으로 시작했다.

한국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 4개 교단이 활동

현재 140개국에서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교단에 속한 신자 수는 약 5억 8천만에 달하는 세계적 교회연합기구이다. 한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에큐메니칼 협의체로 참여하고 있다. 총회는 매 7년이나 8년마다 열리며, 주제를 통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신학적 선교과제 성찰, 세계교회의 교제와 일치, 세상을 향한 세계교회의 공동증언, 차기총회 때까지의 주요정책 결정, 중앙위원 선출 등이 다루어진다. **함글함글**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기도 용어 편 2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X) : 주님, 하나님 아버지(O)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다. 2인칭 존칭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2인칭 존칭 명사에 호격 조사가 붙지 못한다. “민국아”, “예슬아.”와 같이 존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호격 조사 ‘-아’나 ‘-야’가 붙일 수 있지만 손윗사람에게 “아버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라 부르는 것은 불가한 것과 같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의 2인칭이므로 이미 사어가 된 ‘-이여’, ‘-이시여’를 붙여서는 안 된다.

대표기도 (X) : 기도 인도 (O)

“아무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와 같은 안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온 회중이 머리를 숙여 무언의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 기도를 하는 경우는 ‘기도 인도’라 부르는 것이 좋다. 기도 인도자는 그와 함께 머리를 숙인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수 없다. 그는 대표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다. 만인제 사장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사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도에 있어서 ‘대표’, ‘대신’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대표기도’, ‘대신하여 기도’는 ‘기도 인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랑의 예수님 (X) : 사랑의 하나님 (O)

기도 서두에 ‘하나님’ 대신에 ‘사랑의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끝낼 때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 후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는 일차적으로 성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고 하신 말씀에 근거를 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나를 일으킨 한 마디 1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고3 대학입시에서 좌절하고 재수를 생각해야 했던 그 무렵, 난 모든 주위 상황들을 원망하며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다. 대학이라는 것에 얽매어서 내가 끝났다고만 생각했고, 하나님마저 원망했다. 간절히 바랬던 내 꿈과 비전은 모두 잊은 채 내 점수에만 목을 댔다. 그 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씀으로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다시 꿈을 품고 도전할 수 있었다.

김예지 대학부

> “나를 일으킨 한 마디” 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누군가의 말, 구절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역명도 가능합니다.

메일주소 : hamletter@hanmail.net

하나님을 만난 복된 시간들, 2013 여름 캠프, 그 두 번째!

유년부



우리 포도나무 유년부는 7월 26-27일의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여름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이은선 목사님과 교사 20명, 아이들 66명이 참가하여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줘요”라는 주제로 2013년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반별 모임에서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보여 준 욥의 이야기, 편견 없는 사랑으로 롯을 품어 준 보아스의 이야기, 지혜로운 말로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 유년부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별모임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센터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캠프파이어, 교사와 아이의 1대 1 기도시간 등 매순간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무사히 재미있고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걱정을 했었지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은 마냥 신나서 지칠 줄 몰랐습니다. 찬양과 율동 시간 외에도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며 강당에 올라와 서로 율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달는 예배에서는 교사 연극과 성경 퀴즈대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해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한나 유년1부 교사

고등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8월 4일 비전트리 고등부에서는 2박 3일간 가평 그린캠프로 하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The 제자다움”이라는 주제를 품고, 복음을 위해 삶을 헌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는 예수 십대가 되길 기대하며 출발했습니다.

스텝교사들은 약 세 달 전부터 이번 수련회의 프로그램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했고,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저녁 교사 특별기도회를 통해 더욱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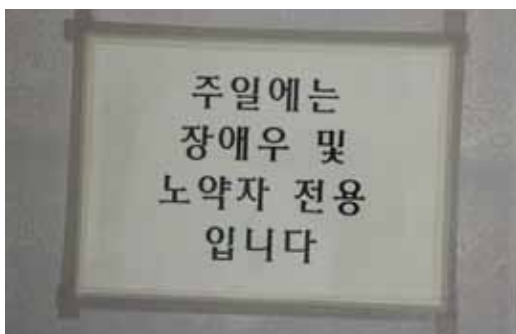
첫째 날 저녁에는 교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겨주시며 은혜로움 가운데 세족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저녁 찬양 집회 시간 때마다 다른 친구들 눈치를 보며 주저했던 학생들이 둘째 날 저녁 성령집회 시간 때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함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모두 촛불을 켜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증 파티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얻은 것들을 간증했습니다.

이번 “The 제자다움” 수련회는 비전트리 공동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 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예지 스텝

☎ 단 소리 쓴 소리

건강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이라면
주일에는
타고 가지
말아야 할 것!



☎ 단 소리 쓴 소리

건강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이라면
주중에는
타고 오지
말아야 할 것!



로템나무

모두가 주님의 귀한 생명들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 날씨 끝에 마침내 새벽부터 반가운 빗줄기가 내리지만 비오는 날, 비를 맞으며 나누는 죽배달 봉사는 맑은 날 보다는 힘들다.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거여동 3단지 거여노인회관에 목요일 죽 배달 봉사자 여덟 분이 모여들면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눈다. 여름방학으로 쉬었던 죽 배달이 지난 주에 재개된 지 오늘이 네 번째로 세 팀이 세 대의 승용차에 죽을 싣고 거여동, 마천1동과 2동으로 향했다. 고령 독거노인, 환자, 부양할 가족이 없는 복지사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 47명을 만

나 뵙는 날이다.

꼬불꼬불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비바람이 제법 스산한 샛골목으로 죽 봉투를 들고 나섰다. 앞서가는 김미 집사가 다세대 지하 방문 앞으로 다가서서 “뚝, 뚝, 계세요?” 하니 이윽고 뚝이격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우리를 맞으신다. 집안은 전기를 꺼서 캄캄하고 역겨운 냄새가 묻어난다. 천식으로 숨이 차서 코에 호스를 끼고 있는 할머니는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나오셨수?” 하시면서 무척 반가워 하신다. 우리는 한 참 얘기를 나누다가 “식사 잘 드세요, 건강하

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며, 다음 집으로 향했다.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금방 내려 골목길을 이리저리 찾아간다. 김미 집사는 봄에 이 봉사를 자원하고 행여 집을 못 찾아가 보아 일부러 걸어서 답사를 하고 지도를 그려서 시작하여 미로(迷路) 같은 골목길을 헤치고 잘도 집을 찾는다.

이렇게 하여 15가정을 다 배달을 하였는데 하나같이 지하 방, 쪽 방에 사시지만 너무도 반가워들 하시며 꼭 안아주시며 그간의 힘든 사정을 허물없이 털어놓으며 고마워하는 모습에 ‘우리가 위로를 드리는구나’ 하는 보

람을 느낀다. 모두가 주님의 귀한 생명들인데 노년에 어렵게 사시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의 작은 섬김이 웃음을 드리고 힘이 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오히려 용기를 얻고 사명을 다집한다. 우리는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세 팀 모두 노인회관으로 돌아오니 노인회장인 박오호 집사는 “점심을 드시라” 며 격려를 하신다. 함께한 봉사자 모두는 아낌없이 섬기는 자의 보람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식탁교제의 자리를 가졌다.

왕진무 집사

신임교역자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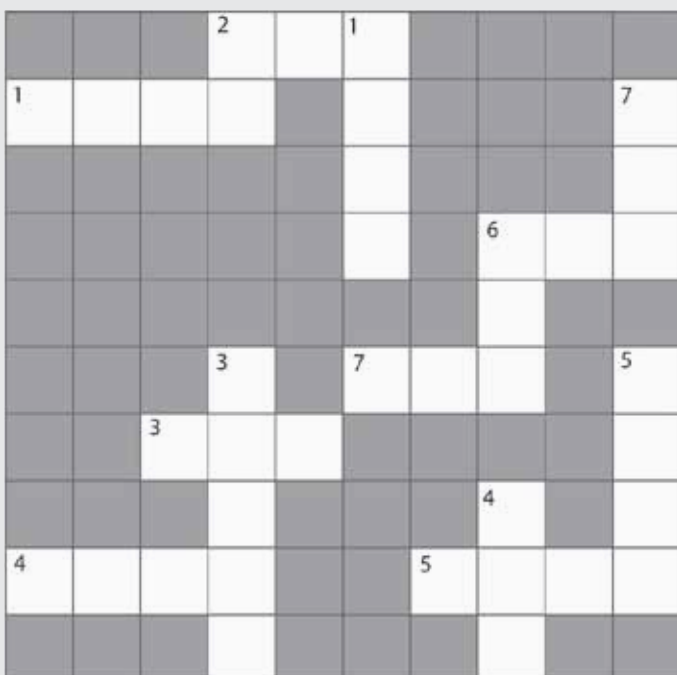
모든 삶을 목회에



주님의교회 가족께 인사드립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온 존 슈나이더 목사와 이지희 부부입니다. 저는 지난 5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병원의 목사로서 청빙을 받았지만, 곧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뉴욕에 있는 한 광고회사의 카피라이터였습니다. 14년 전에 한국 여성과 결혼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저의 절반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절반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섬기도록 부름 받은 일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영어 예배 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구성원과 주위의 공동체에까지 이르기를 희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고후 5:20)으로서, 저는 모든 삶을 목회에, 그리고 모든 목회를 전도활동에 쏟고자 합니다.

존 슈나이더 목사 / 함줄함줄 옮김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역대상-하편



가로

1. 여호야김의 아들로 아버지에 이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은?
2. 유다족속으로 나의 지역을 넓히고 환난을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한 사람은?
3.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곳은?
4.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된 산으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은?
5. 악행을 하는 시드기야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렀던 선지자는?
6.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 아래 성전에서 자라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파괴된 성전을 보수했던 왕은?
7. 아람을 치려는 아합왕에게 여호와와 말씀을 접하다가 옥에 갇힌 되는 선지자는?

세로

1.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앞의 두기둥 중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2.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매우 많은 시종과 보물을 낙타에 싣고 스바에서 찾아왔던 사람은?
3.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던 곳은?
4. 파괴된 성전건축을 위해 유다백성에게 귀국을 허락했던 바사의 왕은?
5. 유다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불러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왕은?
6.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왕은?
7.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앞의 두기둥 중 왼쪽 기둥의 이름은?

지난호 정답 - 가로 1. 바벨론 2. 요람 3. 하사엘 4. 여호야다 5. 히스기야 6. 호세아 7. 요시 8. 게하시 9. 나아만

- 세로 1. 회오리바람 2. 요단강 3. 엘리야 4. 아하스 5. 이사야 6. 여호야긴 7. 요아스 8. 시드기야 9. 아합

부르심의 길에 서서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천막 교회가 세워지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달란트 쿠폰을 받아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떡볶이도 먹고,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학교 공부도 가르쳐 주고.. 교회가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로, 천막 교회에서 사랑으로 목회하며 섬겨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잘 하는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목사님은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응원하며 함께해 주셨습니다. “나도 목사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꿈이 교회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꿈일뿐 두렵기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수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헌신의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

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목사님의 삶을 통해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내가 경험한 사랑, 나도 목사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생활과 영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받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초등학교때의 신앙생활을 어와나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 서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어와나(AWANA :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권혁준 전도사

교회일정

· 선거일정 : 9/15 ~ 22(주일) - 선거인 명부열람

10/6(주일) - 1차 항존직 선거

10/23(주일) - 2차 항존직 선거

· 9/17(화) ~ 23(월) : 청년부 비전트립, 베트남

· 9/26(목) ~ 11/28(목) : 주님의 교회 호스피스 교육

· 9/28(토) ~ 10/19(토) : 13기 싱글매칭학교

· 10/4(금) : 거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 10/6(주일) ~ 20(주일) : 10기 결혼예비학교

교회 단신

군경선교팀 진중 세례예식



주님의교회 군경선교팀에서는 8월 31일(토) 중서부전선에 있는 태풍부대에서 신병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미쇼데이 선교합창단과 함께 참여하여 진중세례예식을 드렸다. 세례예식과 함께, 젊음을 불태우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여성중창, 남성중창, 혼성합창으로 신병교육생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했다.

군경선교팀

안수집사회 송파관내 경로당 방문



주님의교회 안수집사회는 송파구청 주민센터와 협력, 9월 11일(수)에 송파구 관내 취약지역인 마천1동(9개소), 마천2동(7개소), 거여1동(7개소), 거여2동(13개소), 오금동(13개소) 가락2동(10개소), 잠실7동(2개소) 그리고 가락시영1차 경로당 등 62개 경로당에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수갓김치(3kg)를 추석선물로 드렸다.

함글함글

‘비움’은 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애통하다’는 헬라어 ‘펜데오 $\piενθεω$ ’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처절하게 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통’은 죄에 대한 회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시 51:17)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이웃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하여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비워 죄를 진실로 인정하는 마음이고, 책임을 지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과 홀로 애통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애통은 자기 절망으로 끝나고 애통이 거듭될수록 현실에서 벗어나 좌절과 절망으로 죄의 무게가 더 해집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위로와 소망’입니다.